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여파에 관한 연구

정 영 금(가톨릭대)

1990년대 이후로 여성정책이 활성화되고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노력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나, 취업으로 인한 일과 가정의 이교대 노동으로 인해 기혼의 취업여성들은 여전히 일과 가정생활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나 여성가구주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성의 취업욕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는, 기혼취업여성들이 겪는 일-가족갈등이나 과중한 노동부담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결국 여성의 능력부족으로 인식되거나 직업지위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역할갈등(일-가족갈등)과 일-가족여파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제까지는 취업주부의 문제를 논할 때 다양한 역할의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의 연구경향은 일과 가족문제를 개인의 생활에서 통합하고 균형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갈등과 더불어 일-가족여파라는 개념 하에서 과도한 직장일이나 가정일이 서로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일-가족균형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4/6-13일에 실시하였다. 일-가족갈등은 남 경우(1997)의 연구를 기초로 직장인, 주부 등 4가지 역할에서의 갈등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일-가족여파는 Grzywacz, J. G. et al(2002), Netemeyer, R. G. et al(1996), 장혜경 외(2004)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갈등을 넘어서 일-가족여파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취업여성의 일-가족갈등정도를 제시함으로써 해결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할 수 있겠으나, 이것보다는 일과 가족간의 여파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는 진작시키고 부정적인 관계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일과 가족이 기혼취업여성의 생활에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